



벚꽃은 지고 복사꽃 만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21일 전남 화순을 복숭아 농장에 복사꽃이 만발한 가운데 농민들이 수분작업을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황교안 한국당, 국민 분열 선택했다

5·18 망언 김순례 당원권 정지·김진태 경고 '면죄부'
5·18 진상조사위원 대통령 재추천 요구에도 무관심

황교안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미래가 아닌 과거를,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선택했다. <관련기사 3면>

자유한국당 윤리위는 지난 19일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5·18 망언 당사자인 최고위원 김순례 최고위원(64)에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55)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 2월 국회 공청회에서 5·18 망언이 나온지 71일 만에 이뤄진 징계는 실질적 면죄부였다.

한국당 당규에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 징계가 가능하다. 경고는 가장 약한 징계며 당원권 정지도 경징계다. 시한이 '3개월'이어서 내년 총선 출마에 영향이 없다. 최고위원직 박탈 여부도 아직은 미지수다. 두 사람이 받는 불이익은 그들이 보인 행태에 비하면 깃털에 불과하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같은 망언을 퍼부은 이종명 의원에 '제명'의 중징계를 내리는 시늉이라도 했었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 의원 총회에서 3분의 2의 과반이 이뤄져 이 의원이 제명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 망언 의원들에 대한 엄중 징계를 요구했던 5·18 피해자들의 피눈물과 호소는 그렇게 무시됐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황교안 대표 체제가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른다'는 비판이 줄이 줄이 나오고 있다. "자유망언당으로 개명하라"(민주당), "반(反)역사·민주집단 고백"(바른미래당), "한국당 징계를 징계해야"(평화당), "징계가 아

니 격려"(정의당) 등 각 당의 비난 성명이 쏟아졌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치권은 자유한국당이 '대각기 세력' 등을 의식해 경징계를 내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도 확장보다는 지지 세력 결집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또 황교안 대표의 역사 인식이 확인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원 구성에도 별다른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걸려 사유의 위원을 추천해놓고 대통령이 재추천을 요구했다며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 5월을 앞두고 최소한의 공감과 배려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오는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황 대표의 참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5·18 기념식장에서의 충돌도 마다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역과 진영 논리로 갈라쳐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5월은 분노를 넘어 더욱 냉철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장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한다면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일깨워줘야 한다"며 "그것은 물리적 충돌보다는 국민의 가슴을 울리는 진정성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전공대, 효과 극대화 위한 대책 시급

재정 지원 규모에 대한 우려 벗어나 당초 설립 취지 살려야
지역 R&D 기능·경제 효과·경쟁력 등 올리기 방안 마련을

오는 2022년 개교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한전공대와 관련 재정 지원 규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설립에 따른 지역 R&D(연구개발) 기능, 경제적 효과, 지역경쟁력 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설립에 대한 지역 내외의 공감대가 크고, 공모를 거쳐 이미 부지가 선정된 상태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부각시키기보다 이를 계기로 신재생 에너지산업, 스마트그리드

(Smart Grid),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에너지신산업의 육성·성장을 위해 지역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나주시, 전남도가 10년간 매년 100억원의 예산을 부담해야하는 만큼 그로 인한 각 분야의 행정서비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나주시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소관 상임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1662억원 규모의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따른 자원동의안'을 심의해 일부

를 제외한 1331억원이 재정지원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나주시와 전남도가 이달 안으로 한국전력과의 '이행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체결식은 오는 29일에 개최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적이다.

한전은 이행협약을 체결한 뒤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사내 이사회에서 한전공대 설립안을 협의한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 설립에 나서게 된다.

다만 나주시의회 기획총무위가 재정부담을 우려해 1000억원대 발전기금과 연구시설 부지 40만㎡를 한전에 2021년 2월까지 무상 제공하는데 필요한 부지 매입비 331억원 등 총 1331원에 대한 재정 지원 동의안만 가결하는 등 지역 내에서 지나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주시의회 총무기획위는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를 들어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40만㎡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부지 매입비 331억원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한전공대 설립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운영계획 5개년 계획

에 반영된 국가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의 재정 지원규모를 앞서 결정한 것에 대한 지역 내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전공대 설립 시책이 정치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 미래 에너지 인재 육성, 에너지신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산업의 발전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2022년 개교하기 위해서는 나주시·전남도·한전이 내부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정부의 합당한 지원책을 강하게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전철 동신대 교수는 "한전공대 부지를 놓고 광주와 전남이 경쟁을 벌이면서 이 같은 부작용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이제는 재정 지원 우려에서 벗어나 한전공대를 어떻게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전문대학으로 거듭나게 하고 이를 어떻게 낙후된 R&D 역량 제고와 더불어 지역산업과 경제에 기여하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에 대한 비전을 지역민과 공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靑 "트럼프 메시지 남북정상회담 열리면 전달"

북미 톱다운 방식 대화 계속

청와대는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을 '중재역'으로 하는 북미 간 톱다운 방식의 대화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이 '미 CNN 방송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건넨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라는 질문을 하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이와 관련한 메시지가

(김 위원장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메시지 전달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CNN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북수의 한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건넨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 메시지는 현재의 방침(course of action)에 중요한 내용과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 배달 오토바이 무법 질주 ▶6면
KIA 악몽같은 6연패 꼴찌 추락 ▶20면
호남예술제 피아노 입상자 명단 ▶17면

雪花秀
고귀한 적송의 생명력으로
피부, 새로운 힘을 갖다
NEW 설화수 진설크림

영원한 아름다움을 생각해본 적 있나요?
모두가 변치 않기를 바랄 때, 설화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지는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젊음을 지켜내는 적송의 강인한 힘과
창정 자연의 생명력을 그대로 담은 산양삼으로 완성한 진설크림-
이제, 매일 더 새롭게 아름다워지는 피부의 힘을 가지세요

Sulwhasoo
TIMETREASURE
INVIGORATING CREAM
진설크림

Sulwhasoo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약점에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